

치킨부터 생수까지 치솟는 먹거리 물가

치킨 한 마리에 3만 원 시대
햄버거·피자 등도 일제히 올라
냉면·비빔밥 값 최소 1만원

“치킨 한 마리에 3만원이러니? 물가가 왜 이렇게나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관련기사 8면> 28일 광주시 북구 대촌동의 한 식당에서 만난 박모(46)씨는 자고나면 오르는 물가가 숨이 막힌다고 한다.

중학교와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들 셋을 둔 그는 “아이들이 한창 먹을 때라 혼자 치킨 한 마리 해치우는 것은 우습다”며 “치킨 가격이 또 오르면 우리 5인 가족 치킨 한 번 시켜먹으면 10만원이 들어간다”고 푸념했다.

잠시 안정을 찾아가는 듯 보였던 물가가 최근 외식과 가공식품 등 먹거리 가격이 잇따라 인상되면서 또 다시 들쭉이고 있다. 한 치킨 프랜차이즈가 다음달부터 가격을 3000원 추가 인상하면서 배달료까지 포함, 한 마리에 3만원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푸드 등 외식 가격을 비롯해 올해 들어 빵·과자 등 가공식품 먹거리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어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28일 식품·유통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 운영사인 교촌에프앤비는 다음달 3일부터 소비자 권장 가격을 최대 3000원 올리기로 했다. 간장 오리지날 제품 가격이 1만6000원에서 1만9000원으로 올라 인상이 18.8%에 달한다.

“허니콤보”의 경우 2만원에서 2만3000원으로 15% 오른다. 최근 배달비용은 3000원이 기본으로, 배달거리에 따라 5000원 대를 넘나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집에서 주문해 먹는 배달 치킨 한 마리 가격이 3만원에 육박하게 된다.

배달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1위인 교촌치킨이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 역시 인상 행렬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서민들의 대표 간식이자 야식 메뉴인 치킨 가격 인상에 따라 외식 물가 부담은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청소년들과 젊은 층이 많이 찾는 햄버거와

피자 가격도 일제히 올랐다. 버거킹은 이달 10일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평균 2% 올렸고, 지난달에는 맥도날드와 롯데리아가 일부 메뉴 가격을 평균 5.4%, 5.1% 각각 인상했다. 미스터피자도 지난 2월 피자과 사이드메뉴 가격은 4~5% 인상, 도미노피자도 2월부터 5만원 이하 구매 시 배달비 2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빵·과자·아이스크림·생수 등 가공식품 가격도 줄줄이 올라 먹거리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남양유업은 다음달부터 두유 7종의 출고가를 평균 4.7% 올릴 예정이다. 지난달에는 롯데제과가 만두 등 일부 냉동제품 가격을 5~11% 올렸고, SPC 삼립과 파리바게뜨 등도 제품 가격을 올렸다. 롯데제과와 빙그레, 해태아이스크림 등은 아이스크림 가격을 올렸고 제주 삼다수 등 생수 가격도 올랐다.

외식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이제 광주에서 냉면이나 비빔밥을 사먹으려면 최소 1만원은 있어야 한다. 비교적 고급 단품 메뉴인 갈비탕은 2만원이 기본이고 2만5000원인 곳도 상당수여서 이제 서민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 음식이 됐다. 짜장면과 짬뽕도 종류에 따라 8000원에서 1만2000원에 달한다.

이날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지역 냉면 평균 가격은 지난해 동월보다 8.33% 오른 9100원으로, 비빔밥은 6.89% 오른 9300원이다.

먹거리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도 서민들의 가계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우선 정부가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을 이번 주 동시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산업부는 2026년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kWh당 51.6원 올려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어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은 kWh당 13.1원 올라 역대 분기별 최고 인상 폭을 기록했다. 올해 나머지 3분의 분기별 요금 조정에서도 비슷한 폭의 인상이 이뤄져야 연내 적정 인상액(kWh당 51.6원)을 달성할 수 있다.

“난방비 폭탄 고지서” 사태를 이끌어 냈던 가스 요금도 올해 1분기 동결된 탓에 2분기 인상이 압력 커진 상태다.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이 큰 이유다.

광주 경제계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들에 가격 인상 요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도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부담이 커져 추가 가격 인상을 막기 어려워 보인다”며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 서민들의 대표 먹거리 가격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가계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시민 '나눠나눠주기' 행사 28일 오전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열린 '나눠나눠주기' 행사에서 시민들이 모역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광주시는 봄을 맞아 '내 나무 갖기' 차원에서 흥가시나무, 삼색 조팝나무, 제주 산수국, 사인머스켓 등 4개 수종을 시민 2000명에게 선택권 무료로 나눠줬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日 교과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 대통령실 “단호 대응”

외교부 “깊은 유감 표명”

대통령실은 28일 일본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군징병의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한민

국의 영토와 주권과 관련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단호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독도 영유권이나 일제강점기 역사인식에 있어 일본이 왜곡되고 무리한 주장을 이어갈 경우에는 정부가 물러서지 않고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앞서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도 이날 오후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주한 일본대사관 대사대리인 구마가이 나오키 총괄공사를 초청해 항의했다. /연합뉴스

다자녀 기준 '3자녀→2자녀' 넓어진다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방향 발표

정부가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일·육아 병행을 돕고 현금성 지원을 확대해 양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아이돌봄서비스 참여 가구를 크게 늘리고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두 자녀 이상만 태도 양육과 주거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영아 병원비 부담을 낮추고 난임 지원은 넓힌다.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과

노인연령 조정 논의를 본격화하는 한편,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늘리고 신노년층에 맞는 일자리를 확충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는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올해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저출산위는 우선 가정 내에서 양육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를 작년 7만8000가구에서 3배 수준으로 늘릴 계획을 밝혔다. 아이돌보미 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영아종일제 돌봄 수당을 추가로 지원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 500곳 규모로 확충하고 인센티브·근무수당 지원으로 0세반 개설과 토요 보육 확대를 유도한다. 다자녀 가구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자녀 이상'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관련 정책의 다자녀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중심으로 넓어지는 것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대상과 기간, 급여도 늘어난다.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 상한을 초등 2학년(만 8세)에서 6학년(만 12세)으로 높이고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통상임금 100% 지원 시간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린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전라남도가 글로벌 인재를 키웁니다!

글로벌 문화체험 캠프

- 대상국가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영어권 국가
- 지원대상 도내 중학교 2학년 재학생, 2009년생 학교밖 청소년
- 선발규모 80명 내외
- 기간 겨울방학 중 3주
- 모집공고 2023. 8월

대학생 글로벌 비전캠프

- 대상국가 미국, 독일, 베트남
- 참여대학 목포대, 순천대, 동신대, 전남도립대 등
- 선발규모 도내 대학생 100명(대학별 25명)
- 기간 여름방학 중 2주
- 모집공고 2023. 3월

마이스터 현장연수

- 대상국가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 지원대상 도내 특성학교·마이스터고 재학생 중 2023년 정부주관 전국단위 경진대회(전국기능경기대회, 전국영농학생진전대회, 전국상업경진대회) 수상자
- 선발규모 30명 내외
- 기간 겨울방학 중 2주
- 모집공고 2023. 10월

지역공헌 인재 해외 마일리지

- 대상국가 미국·캐나다, 유럽, 호주·뉴질랜드
- 지원대상 도내 대학생, 만19~24세 청소년
- 선발규모 15명
- 기간 겨울방학 중 2주
- 모집공고 2023. 10월

전라남도 해외유학생

- 지원대상 해외 대학 석·박사 정규 학위과정 (전공분야 제한없음)
- 선발규모 5명 내외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1억원 (2년 분할) 유학비용
- 모집공고 2023. 2월

자세한 내용은 공고시기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www.jntle.kr) 참고

전라남도·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Jeollanamdo Institute for Talent & Lifelong Education